

NEWS LINE

산업부장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제출 받아

금년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키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 이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원전소재 지역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장관은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민의(民意)를 수렴한 이번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올해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공론화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떤 만큼, 앞으로도 여론형성총(오피니언 리더)으로서 공론화위원회와 원전소재 지역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했다.

올 여름, 에너지를 부탁해”로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문화 정착

2015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과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2015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이 모인 시민단체 협의회

이는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규제 시기*(6. 29 ~ 8. 28 시행)에 맞추어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 (공공) 건물 실내냉방온도 제한(전기식: 28℃이상, 비전기식: 26℃이상) 등 (민간) 문 열고 냉방영업 제한, 적정냉방온도(26℃이상) 권고

출범식 참석자들은 ‘올 여름, 에너지를 부탁해!’라는 슬로건 아래 세 가지 실천요령을 알리는 거리캠페인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절전서약 이벤트를 담은 국민 절전캠페인을 전개하기로 다짐했다.

〈실천 요령〉

1. 컴퓨터를 부탁해: 컴퓨터 켤 때는 본체 먼저, 모니터 전원은 1분 후
2.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실의 공간은 여유있게, 냉동실은 가득 채우는 센스
3. 전등을 부탁해: 백열등을 LED 조명으로 바꾸기만 해도 완전 이득!

〈절전 서약 이벤트〉

절전 우수사례를 온라인 상에서 댓글로 공유함으로써 참여자의 전기절약 유도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캠페인 참여 선언’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후 진행된 거리캠페인에서 국회의사당 앞의 상가 입주민들과 직장인들에게 부채, 온도계 및 멀티탭을 나눠주면서 적정온도를 지키고 문 닫고 냉방 영업하는 것에 감사 의미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은 온실가스 감축에 온 국민이 쉽게 동참할 수 있으면서도 가치가 높은 일임을 알렸다.

또한, 캐릭터 조형물을 이용한 국민참여형 퍼포먼스를 통해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는 각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에너지사용제한규제 시기동안 대국민 절전캠페인을 전국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나승식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수요
관리 정책단장은
“올해 하절기 국민
절 전 캠페인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문화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더쿠(DUCK-OO) 조형물과 함께 플러그 형태의 차단봉을 뽑음으로써 조형물을 직접 만지고 함께 사진촬영도 진행했다.

확산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외의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에너지산업 혁신을 이끌 창의 인재를 찾아 나서다

제2회 에너지기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에너지기술에 대한 청소년과 대학(원)생의 관심을 유도해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유입을 위해「제2회 에너지기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

공모전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전력 등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효율향상,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기술을 대상으로 신기술, 적정기술, 사업모델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참가대상은 국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 대학(전문대, 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교사, 교수와 함께 학생

2~4인의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제1회 에너지기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국에서 고등부 51팀, 대학부 108팀 총 159팀이 참여해 ‘깃발의 팔력임’을 이용한 ‘풍력발전’ 등 에너지기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가 겨뤘다. 「제2회 에너지기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모전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회 추천 전문가와 주관기관이 선정한 전문가가 함께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본선에 진출하는 고등부와 대학부 각 10개팀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고등부는 팀당 100만 원, 대학부는 팀당 200만 원을 지도(멘토링) 비용으로 지원한다.

최종수상자는 본선 진출팀 가운데 고등부와 대학부 각 5개 팀을 선정해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최우수상(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상), 우수상(에너지관련 학회장상)이 장학금과 함께 수여하며 국내 에너지산업시설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제2회 에너지기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의 세부적인 운영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며, 예선 응모작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7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예선서류심사(8월)와 본선(10월)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creative-energ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동영상, 공모전 관련 질의응답(Q&A)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 UAE원전 2호기 원자로 성공적 설치

1호기 이어 2호기 원자로 설치로 적기 준공을 위한 순조로운 공사 진행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 건설
강점 알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달 16일 UAE 바라카(Barakah) 원전 2호기 원자로 설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UAE원전 2호기 발전소 내 원전 핵심설비인 원자로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기전공사가 착수되었다.

〈원전건설 주요공정〉

- 부지정자→기초굴착→최초콘크리트타설→원자로설치→초기전원
가압→연료장전→준공

이날 행사에는 UAE 부총리인 셰이크 함단 빈 자이드(H.H. Sheikh Hamdan bin Zayed),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겸 ENEC 이사회 의장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H.E. Khaldoon Khalifa Al Mubarak) 등 UAE정부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UAE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UAE정부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UAE원전사업의 주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현대건설 및 삼성물산 등의 임원들은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다짐하고,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UAE원전 1, 2호기 종합공정률(5월말 기준)은 66%이며, 1호기는 지난 지난 4월 초기전원가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발전소 시운전 준비를 위한 모든 기기의 성능시험에 착수하였고, 2016년 10월 핵연료 장전을 거쳐 2017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2,3,4호기도 1호기 준공 이후 1년 단위로 준공되어 UAE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UAE원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전과 함께 애쓰고 있는 협력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UAE원전 사업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 이상으로 관리하는 세계최고수준의 모범적인 현장으로, UAE원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전은 이번 UAE원전 2호기 원자로 설치 적기달성을 계기로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의 원전건설 강점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건설과 목표준공 적기달성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한번 높이고, 제2, 제3의 해외 원전수주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UAE원전 2호기 원자로 설치를 기념하는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수원, 고리1호기 2차 계속운전 미신청
최종 결정**

**영구정지와 해체준비 등 위한 사장 직속 TF 구성
계속운전 제도적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열어 논의 끝에 고리1호기의 2차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고리1호기 1차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2017년 6월까지 철저한 안전운전과 함께 영구정지 및 해체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최종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이지만 사업자로서 2차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했음을 이견 없이 확인했다. 특히, 1차 계속운전 결정이 내려진 2007년 이후 고리1호기의 현재까지 고장정지는 5건으로, 고리1호기 고장정지 전체 130건 중 약 4%에 불과해 충분한 안전운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참석자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 두 기관의 고리1호기

경제성 분석 결론은 모두 흑자로 나타나 2차 계속운전 신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일부 참석자들은 월성호기 사례에 비춰볼 때 고리호기 2차 계속운전의 심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운전기간 단축 및 가동률 저하, 지역지원금 증액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시간 격론 끝에 2차 계속운전의 경제성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사회는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대의를 감안해 고리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한수원은 고리1호기 1차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2017년 6월까지 '안전 최우선' 가치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예정이다.

한수원은 향후 도래하는 계속운전 대상 원전의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운영 종료 2~5년 전 신청, 허용기간 10년 등 현행 규정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리1호기 전경

중부발전 본사 이전 완료

한국중부발전은 서울 대치동 소재 본사를 충남 보령시로 이전하는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본사 이전을 위해 작년 12월 본사 사옥을 새로이 준공하였으며, 5월에는 이주 직원의 안정된 거주를 위한 숙소를 준공했다.

이전 사업은 올해 1월 일부 부처 이전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본사 2본부 4층 3실을 모두 옮겼으며, 약 250명의 임직원은 6월부터 보령 신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중부발전은 본사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화력발전 산업이 밀집한 충남지역과의 상생으로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중부발전 신규사옥 전경

나이지리아 액빈발전소 정비공사 준공

나이지리아 최대규모 발전소 9년만에 전호기 정상가동

한국서부발전(사장 조인국)은 나이지리아 라고스 인근에 위치한 액빈발전소 5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전호기 정상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액빈발전소는 나이지리아 경제수도 라고스 인근에 위치한 서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발전소(1,320MW, 220MW×6기)로서 나이지리아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전과 나이지리아 사하라그룹 컨소시엄이 발전소 운영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서부발전은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사업을 수주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번 계획예방정비는 현지 가스공급회사의 파업으로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종 발전소인 평택화력을 30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전문 인력들을 파견하여 12일의 공기단축을 이뤄낸 성과라 더 의미가 깊다.

나이지리아 발전소 관계자는 “이번 계획예방정비공사의 성공으로 2006년 이래 9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전소 전호기가 정상 가동되어 나이지리아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액빈발전소 가동으로 2018년까지 150억 원의 수익창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O&M사업, 인도네시아 숄셀5 O&M사업을 통해 약 2,741억 원의 수익을 낼 전망이다.



계획예방정비공사 준공 후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및 냉방기 가동중단 등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한 계기가 되었다.

올 여름은 전력수급 상황이 호전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력수급 위기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부발전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우 사장은 “남부발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전 발전기 무고장 운전으로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 본사에서 진행된 '전력 위기대응 훈련'에서 남부발전 관계자들이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남부발전 “전력 위기대응 훈련 실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태우)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달 24일 부산 본사 및 사업소에서 전력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염 및 폭우, 발전설비 불시정지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 할 수 있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전파 및 대응능력을 사전에 점검해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훈련은 5단계 비상상황(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진행하였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무실 전체 조명 소등

동서발전, 국내 첫 신재생에너지 자립군(郡) 만든다

고흥군, 신재생에너지로 소요전력 100% 충당

에너지 신사업 모델 제시...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지자체 에너지 자립

한국동서발전(사장 장주옥)는 지난달 30일 고흥군청에서 박병종 고흥군수,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신 SK증권 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최초 에너지 자립군(郡) 달성」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이 추진하는 ‘대한민국 최초 에너지 자립군(郡)’

조성사업은 고흥군의 소요전력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는 에너지 신사업이다. 고흥군의 연간 소비전력은 427GWh(2014년 기준)로, 현재 운영 중인 거금도 태양광발전소(25MW)를 포함하여, 신규 건설 중인 태양광·풍력발전소와 이번에 동서발전과 추진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40MW)가 준공되면 연간 477GWh의 전력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다.

동서발전은 발전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건설·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건설될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고흥군 소요전력의 약 63%를 담당하여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군(郡)을 조성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3년 7월, 30MW 동해 바이오매스 전소(全燒) 발전소를 준공하여 화석연료의 혼소(混燒)없이 목질계 고택연료만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이번 고흥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업무협약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형 전원 개발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결합한 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지역 내 발전소 유치 기피로 대규모 전원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자체의 에너지자립은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면서, 지역주민들이 에너지자립을 통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수용성이 높은 사업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동서발전에서 운영 중인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경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이라는 에너지 사업의 새 패러다임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PS, 나주시 다도면 광주U대회 입장권 전달

광주U대회 개최식 입장권 150장 전달 통해 지역사회 상생 협력 도모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지난달 29일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사무소를 방문해 흥재민 다도면장에게 광주U대회 개최식 입장권 150장을 전달했다.

이번 광주U대회 개최식 입장권 전달은 한전KPS와 나주시 다도면 두 기관의 발전과 R&D Complex가 건립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외근 사장은 광주U대회 개최식 입장권 전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전KP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사가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나주시 다도면은 지난 2013년 8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인 동시에 한전KPS의 R&D Complex가 건립될 지역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한전KPS 최외근 사장이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흥재민 면장에게 광주U대회 입장권 150장을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재민 다도면장은 “한전KPS는 그동안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나누시 다도면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며 “이번에 전달된 광주U대회 입장권을 통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점을 감사히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전KDN, 공기업최초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 CC인증 획득**

공공분야 스마트워크 등 현장업무 사업진출에 크게 기여

한전KDN(사장 임수경)은 공기업 최초로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MoBiCa V2.0)에 대해 CC(Common Criteria : IT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기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보안관리 분야 CC인증은 2014년 6월부터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모바일 기기 도입 시 채택이 의무화된 인증으로 현재 한전KDN을 포함한 6개 기관만이 취득한 상태이다.

MoBiCa V2.0은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에 납품해 운영해온 ANSEM V1.0의 후속모델로, 에이전트 보호기능, 원격 초기화 및 자동 잠금기능, 운영체제 변조탐지 및 대응기능, 외부기기 자료전송 통제기능, 스마트폰 감사기록 관리기능 등이 개선됐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업무용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 단말기 등록, 사용자 승인 및 인증, 암호화 채널을 통한 자료 전송, 분실 또는 비정상 사용 시 단말 잠금 및 자료 삭제, 비인가 통신 차단기능 등을 단말기에 설치한 보안 에이전트와 관리시스템(MDM: Mobile Device Management)을 통하여 여러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한전KDN 관계자는 MoBiCa V2.0은 중소기업 육성 및 상생 차원에서 중소협력기업인 휴네시온의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판매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모바일 보안관련 핵심기술과 솔루션을

확보한 한전KDN은 향후 공공분야 스마트워크 등 모바일 현장업무관련 사업진출에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심에 안심을 더하다’**

전기공사협회-국민권익위, 부실시공 근절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지난달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 활성화 등을 뼈대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맺은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기공사업계 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법 위반한 이들에 대한 공익신고 방안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 등도 개최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공사와 관련된 공익침해 행위 예방 및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전기공사 안전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활동에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공사 면허를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무등록 시공업자들이 불법으로 전기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회 중앙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언규)는 지난 5월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무등록 업체가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는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해당 무등록 시공업체들에게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포털 사이트 3사에서 ‘전기공사’를 검색한 결과 약 1300건의 업체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무등록 시공업체 임에도 전기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벌인 곳은 무려 400곳에 달했으며, 무등록 시공업체에는 해당 사이트 폐쇄(또는 수정) 등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사법당국 고발조치 의뢰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장철호 전기공사협회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업무협약 체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력이 시장에 만연한 불법 무등록 시공행위를 근절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최우수 KAS 공인기관 선정

‘제8회 세계 인정의 날’ 기념, KAS 제품인증기관 최초 단체 부문 수상
시험인증산업 활성화와 국내기업 해외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 산하 전기전문 출연 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KERI·원장 박경엽)이 ‘2015년 제8회 세계 인정의 날’을 맞아 시험인증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제품인증제도(KAS) 제품인증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매년 6월 9일로 지정된 ‘세계 인정의 날’은 시험인증 분야의 국제인증기구협의체인 국제시험기관인증협력체(ILAC)와 국제인증기구포럼(AF)이 국제적인 무역환경에서 인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지정해온 날이다.

이번 수상은 한국제품인증제도(KAS) 제품인증기관으로는 최초로 단체부분에서 받은 상으로 세계 3대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한국전기연구원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KERI는 현재 전력기기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 고전압 및 대전력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최고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KERI는 1976년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로 설립된 이래, 현재 차단기, 개폐기, 변압기 등 전력수송 관련 전기기기의 인증, 시험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기전문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1994년 한국인증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2008년 한국인증기구(KOLAS) 공인검사기관, 2011년 세계단락시험협회(STL)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또한, 제품인증기관으로서 2003년 이탈리아 인정기구인 ACCREDIA와 2005년 한국제품인증기구(KAS)로부터 전기제품에 대한 공인제품인증기관 자격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650건의 인증서를 발행했다. 중전기 분야 국내 최초의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 지원 및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KAS 제품인증의 V-CHECK마크를 획득한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KERI 품질인증1실 김민규 실장은 “KERI는 세계 3대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력기기 분야 시험·인증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 매출증대 및 해외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는 KERI의 시험·인증사업이 주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2조 3000억 원으로 분석했다.

에관공, 오는 11월 에너지 종합 전시회 개최

대한민국 에너지제품 총 집합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이 오는 11월 17일(화)~20일(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에너지종합전시회인 ‘2015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기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기술 등 최신 에너지트렌드를 총망라한 '에너지종합전시회'로서, 197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35회를 맞는 에너지 전문 전시회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7월 29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명(社名)을 변경하고 '제 2의 창사'를 맞이하는 만큼,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의 규모를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키워 약 400여개 기업, 1,500개 규모의 부스를 꾸려 에너지 기업의 신제품 및 신기술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공단이 주관하는 역대 최대(最大) 규모의 '에너지 페스티벌'로 꾸밀 예정이다.

더불어, 에너지관리공단은 전시회에 대규모 국내외 바이어 초청과 영상 및 언론 홍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참가 기업들의 판로 확보와 인지도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출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에너지 종합 전시회의 이름을 걸고 역대 최대(最大), 최고(最高)의 전시회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중, 협력사 가장 좋아하는 사업부문장이 동반성장 직접 챙긴다

예년보다 10배 많은 연 40개사 방문 예정...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도 추진
최고경영진(CEO, COO), 현장 방문 등 통해 개선사항 직접 확인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부회장 박지원)은 보다 실질적인 협력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협력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업부문장이 동반성장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그 동안 최고경영진 위주로 진행되던 동반

성장 활동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각 사업부문장(BG장)들이 직접 협력사를 찾아가 세세한 부분까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해소 방법을 찾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산중공업 내 6개 사업부문장이 올해 방문하게 될 사업장은 예년에 비해 10배 가량 많은 총 40여개사가 될 전망이다. 부문장들은 이 가운데 12개 협력사를 이미 상반기에 방문해서 협력사 경영진 뿐 아니라 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개선과제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BG장들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진(CEO, COO)이 직접 점검을 하는 한편, 최고경영진이 협력사를 다시 방문해 개선된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의 동반성장과 구매를 총괄하는 김명우 관리부문 사장은 지난주 경남 김해의 에이치케이금속과 부산의 ㈜화신볼트산업을 방문해 협력사들이 제기한 △원자력 품질보증교육 시행 △신속한 단가계약 등 일부 요청 사항을 즉석에서 수용했다. 김명우 사장은 "우수 협력사들이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을 확대할 경우, 지역의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해 자금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테스트베드(Test bed)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김명우 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협력사 ㈜화신볼트산업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LS산전, 8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 수상

경영인협, 공격적 R&D투자·해외 시장 개척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인정

LS산전(대표이사 구자균)이 전력·자동화는 물론, 그린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고기업에 선정됐다.

LS산전은 지난달 23일, 한국경영인협회 주최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에서 전기·전선분야 최고기업 대상을 8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LS산전은 주력 사업인 전력·자동화와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HVDC(초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ystems) 등 에너지 효율화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와 상용화에 R&D역량을 집중하고, 공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영인협회 측은 "LS산전은 새 미션 '퓨처링 스마트 에너지(Futuring Smart Energy)'를 발표하고, 사업구조를 기기(Device) 중심에서 솔루션으로 진화시키고 기술과 사업 간 융·복합을 통한 제품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전력인프라, 그린비즈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주도권을 확보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LS산전은 해외진출에 다소 소극적인 국내 중전기업과는 달리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으로 유럽기업 일색이던 중동의 전력인프라,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수 년 째 수주릴레이를 이어가며 현지 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

LS산전은 이라크 현지에서 스마트그리드 분야 세계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AMI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억 4,700만 달러(한화 약 1,604억 원)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뉴 시티 프로젝트(Bismayah New-City Project ;

이하 BNCP)'의 GIS(Gas Insulated Switchgear ; 가스절연개폐장치) 변전소 구축 사업을 수주,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 역량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 '2015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에 선정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3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월간조선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후원한 '2015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선정식 및 출판기념식'에서 상생경영 부문 CEO로 선정됐다. 